

2 0 2 3 지 구 촌 교 회

# 가 정 예 배 순 서 지

Loving Jesus,  
예수님 사랑,  
예수님 전람!  
Sharing Jesus!



**VOL.18**  
2023 5-6

# 은잔 논란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해



복음성가

지 142장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4:1-17

- 01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 02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 03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 04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 05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 06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가서 그대로 말하니
- 07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 08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 09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 10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 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 11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 12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라
- 13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 가니라
- 14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 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 15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 16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 17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1.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하려고 몰래 계획을 합니다. 형제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을 가득 담아 주고 돈도 자루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이 쓰는 은잔도 넣어둡니다. 요셉은 이러한 계획으로 옛적에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처럼 베냐민과 아버지에게 대한 배려 없이 여전히 각자의 안전과 이익만을 생각하지는 않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남을 나보나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상대방을 위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2. 처음에 인질로 잡혀 있던 시므온과 베냐민, 형제들 모두는 안전하게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루에서 나온 돈과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온 은잔은 그들에게 커다란 근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형제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감싸며 요셉에게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그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결과로 이끄실 것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삶에 대한 태도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

# 유다의 간청



##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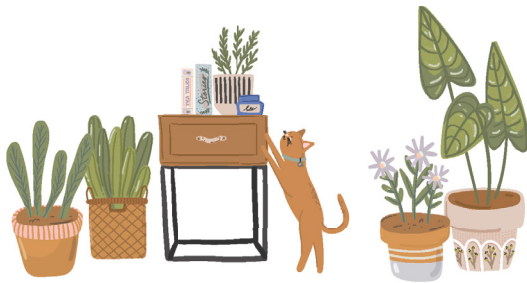
## 복음성가

지 288장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 18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 19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 20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 21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 22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 23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 24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 25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 26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
- 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 27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 28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 29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 30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 31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 32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 33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 34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1. 요셉의 계획으로 인해 동생 베냐민만 이집트에 남고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하여 요셉에게 베냐민을 고향에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며 간청합니다.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그 사실로 충격을 받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과거 시기심에 눈이 멀어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이십에 팔았던 모습과는 반대로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 용기를 내 변호하는 변화된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 유다는 동생을 잃게 되면 고통받을 아버지를 생각하며 요셉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과거에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유다가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는 제안입니다. 베냐민과 아버지, 그리고 모든 가족을 살리기 위한 유다의 자기희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희생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억울한 일을 당해 마음이 힘들었던 적은 없었나요? 그런 상황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변호해 줬던 사람이 있다면 가족들과 나누어보세요.

#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사람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복음성가

기꺼이 주께

- 01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 02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 03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 0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 05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 06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 0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 0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 09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 10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 11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 12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 13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 14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 15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1.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들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이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형들의 마음에는 반가움보다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형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지만 걱정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애굽에 온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형들을 품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참된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습니다.
2.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의 과정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45:7~8 말씀에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 되심을 100%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100% 확신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어려움과 아픔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내 삶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고백해 봅시다

# 기쁜 소식



찬송가

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복음성가

지 194장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 16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 17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 18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 19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 오라
- 20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 21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 22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 23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열 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리고 암나귀 열 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싣리고
- 24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 25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 26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하더니
- 27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 28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1. 요셉이 형제들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왕은 그들을 환대하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가족들을 모두 이집트로 초청하며 의복과 곡식과 기구들을 내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미워했기에 버렸고 잊혀진 줄 알았던 요셉으로부터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아름답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2. 요셉의 형제들은 바로의 선물과 함께 야곱의 집에 도착하여 요셉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이 생존하고 있으며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한동안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워하던 가장 사랑했던 아들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아들 베냐민까지 잃을 각오를 하며 삶의 의미를 잃어가던 야곱의 생애가 다시 밝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아름답습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뜻밖의 소식을 듣고 기쁨 가득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우리 가정에 주셨던 기쁜 소식들을 나누어보세요.

# 회개하지 아니하면



##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 복음성가

지 132장

매일 스치는 사람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1-9

- 01 그 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 02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 03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 04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 05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 06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 07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 08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 09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1. 빌라도로 인하여 여러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사건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여러 명의 사람이 죽게 된 사고에 대하여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사건과 사고로 죽게 된 사람들의 죽음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죄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모두가 죄인이며 모두는 그 죄로 인한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의 신앙과 삶을 뒤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2. 회개를 촉구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원하시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너무 늦기 전에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품고 있는 VIP는 누구인지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 18년 동안 귀신에 들린 여자



찬송가

272장  
고통에 멍에 벗으려고



복음성가

지 39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10-17

- 10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 11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 12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 13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 14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옛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 15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 16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 1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1.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도 제대로 펼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자를 부르시고, 직접 안수하여 병을 고쳐 주셨고, 여자는 고침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2. 회당장이 이 소식을 듣고 화를 내며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제한된 지식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일의 참된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참된 가치를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동정심은 있지만, 18년 동안 귀신에 들렸던 그 한 여인을 바라보지 못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위해 가족이 함께해야 할 일들을 나누어보세요.

# 좋은 땅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복음성가

지 416장  
주 말씀 향하여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1-17

- 01 그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 02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 03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 04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 05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 06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 07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 0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 09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 10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 11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 12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 13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니라
-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 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 16 그러나 너희 눈은 밝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1.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좋은 씨앗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길, 얇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등 4종류의 땅에 씨앗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땅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너무 좋은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지만 마음밭의 상황에 따라 열매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농사를 짓는 분들이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밭을 갈고, 돌과 가시를 걷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좋은 땅이 되도록 경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굳은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하고,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걷어내야 합니다. 또한 좋은 땅도 관리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땅으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2.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를 직접 해설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한 가지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마13:16)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앗인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열매 맺기를 기도할 때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요?

# 알곡과 가라지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성가

지 200장  
아버지 당신의 마음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24-30, 36-43

- 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 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 26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 27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 28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 29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 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 36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 37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 38 밭은 세상ियो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यो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 40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 41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 42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 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곡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천국의 자녀들을 말하고 가라지는 원수가 심어놓은 악한 자의 자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겉으로 볼 때는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단과 같은 유사한 복음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교회 속에 들어오고 교묘하게 성도들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이러한 상황이 공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알곡과 가라지는 심판의 때에 구분될 것입니다.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풀무 불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심판의 때까지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며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심판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 하브루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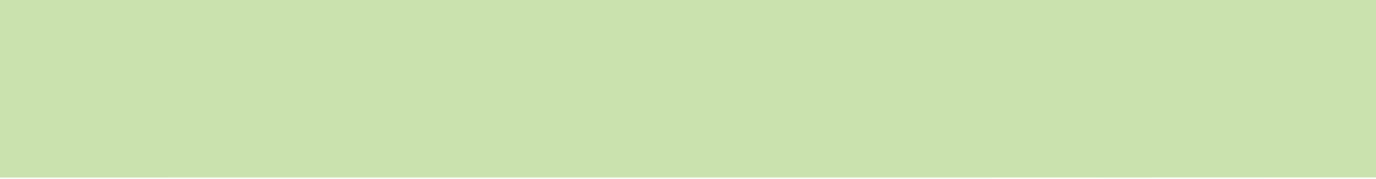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 주변에 가라지와 같은 이단들을 살펴보고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족들과 이야기해보세요.

# 우리가족 기도제목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prayer requests.



Blank lined area for writing prayer requests.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most of the page width.



##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히려 하브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가장의 축복기도

우리 가정을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고,  
현숙한 아내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부르셔서 평강의 도구로 사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노력으로 우리 모두가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하고, 복된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안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아내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마음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내가 남편에게 :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남편을 더욱 존경하며, 응원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용기와 담대함이 마음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여호와께서 **자녀이름**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이름**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자녀이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자녀이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24-26]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이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지혜를 더해주시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담대한 믿음의 사람, 겸손한 성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선하신 하나님!  
우리 가족이 날마다 평안하고, 기쁨이 가득하도록 함께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가족이 되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모든 것에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인도를 받게 해주세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감사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담대한 마음과 거룩한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한 주간이 되고,  
모든 만남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 few additional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at the bottom of the page.



